



브라질 항만노동자들, 3월 19일 파업 계획

(2013.3.7. 로이터통신)

원제: Brazil dock workers plan new 24-hour strike for March 19 - RTRS
07-Mar-2013 04:39

브라질 항만노동자들은 정부의 항만터미널 민영화계획과 관련된 협상에서 성과가 거의 없어 3월 19일 전국적으로 24시간의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항만노동자들과 정부의 협상은 3월 15일까지 계속되며 쟁점은 민영화를 하더라도 OGMO라 불리는 국영기관을 통해 채용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항만노동조합대표인 Paulo Pereira da Silva는 24시간 파업 이후에도 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적인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